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희망을 자아내도록

김진균 - 서울대 교수, 사회학

단체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객관적으로 사회의 유동 상태와 거기서 발생한 사실을 그대로 적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사는 또한 시간상의 상속성과 공간상의 보편성을 가짐으로서 한 사회 단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단체 선생은 종전의 왕실 중심과 중국 중심적 역사기술을 배격하고 민족의 다수 구성원인 민중의 삶을 기초로 역사서술을 시도했으며, 동시에 민족독립혁명의 대본영을 민중에 두고 민족해방운동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해방 직후 통일된 근대적 민족국가를 구성해 내지 못하고 강대국들의 힘에 휘둘리고 분단되었습니다. 이에 연유하여 강제된 군사주의적 체제에 의하여 제헌헌법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이 역사의 기초와 중심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민중은 20세기 후반 민주화운동의 치열한 운동을 집중해 내어서 분단된 상태이지만 민주화된 사회의 형성을 거의 완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시에 민족통일의 전망을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는 역사를 구성해 가고 있습니다.

1960년의 사월혁명은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독재는 배격되어야 할 역사적 과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쿠데타는 민족 민중의 민주화 열망과 민주화 구성의 에너지를 훼손하고 낭비시키면서 장기적 독재체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민중의 힘은 결코 잠재울 수 없다는 이치에 역행한 이 역사과정은 반동적이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민중의 역량은 자라고 조직되어 비로소 민주화의 역사진행 대장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21세기는 등급이 높아진 민주주의의 내실과 민족통일의 진보적 미래를 구축해 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은 많은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젊은이들, 노동자들, 민주적 인사들, 그리고 그 가족들, 이 모두가 개인적인 물질적 성취나 가족적 안녕을 희생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워왔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중매체로 활자화한 자료는 이들의 희생적 활동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배블록을 이



른 국가기구나 수사기구의 기록 내지 범정의 자료들, 스스로 반동적 진영에 선 언론매체들의 자료들, 이와 연관된 연구소들에 의해 양산된 편향적 지식과 자료들, 상징화된 이미지들의 자료들이 범람하고, 이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편향된 '기록' 구성물은 민중의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왜곡하기까지 했습니다. 운동 당사자들이 일상적으로 싸워온 기록들은 탄압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 압수되어 어딘가에 '폐기' 되어 버렸습니다.

민주화운동은 '기록' 차원에서 복원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기록'을 사실대로 기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발전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와 자율성에 대한 믿음이 인간다움의 자부심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민주화에 대한 기록은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민족, 젊은이들, 자라나는 세대가 이 민족의 민주적·진보적 역량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고, 이 자부심에 의하여 타민족, 어울려 살아가야 할 다양한 인종과 인류에 따뜻한 포용력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역량은 과거에 대한 사실대로의 역사 정립과 함께 미래에 대한 진보적인 구상과 기획을 그 역사 속에서 잉태되어 나오도록 길러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과정과 전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가는 세계화가 민족과 인류의 구성원을 선별하여 배척하고 배척되도록 두어서는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미래를 열어내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양한 인류가 서로 돕고 살아가는 세상을 전망해야 합니다. 인류 상호 간에 정치적·군사적 패권과 경제적 착취가 제거된 상하이생(相資以生) 원칙을 추구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나온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살피면 그만한 역량과 희망이 있다고 확신하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